

序 文

自古로 歷史와 傳統을 지키고 尊重하는 民族은 繁榮하고 發展하여 오늘날 強大한 民族國家를 形成하여 世界에 君臨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民族은 衰退 滅亡하거나 弱少民族으로서의 苦難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個人의 集團體인 한 民族이 그 來歷을 알고 그 傳統을 지켜가는 氏族은 發展하고 繁榮하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오늘의 自己를 存在하게 해 주신 先祖들에게 感謝하고 그 感謝하는 마음은 祭祀나 墓所의 參拜와 保存으로 表現되는 것인데 그러한 大小行事를 通하여 宗族相互間에 서로 團結하고 敦睦하는 美風良俗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慶州鄭氏는 新羅六部族의 한長이신 樂浪候公(智伯虎)을 始祖로하여 高麗時代와 朝鮮朝時代를 通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二千餘年 동안 七十餘世의 數十萬에 이르는 后孫들이 全國 坊坊谷谷에서 多方面으로 活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慶州鄭氏는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世上에서는 慶州鄭氏를 가리켜 東邦의 大姓이요 巨族이라고 불려온 것입니다

慶州鄭氏 二千年史를 概觀하면 新羅開國의 功臣이신 樂浪候 할아버지를 爲始하여 數 많은 名公巨卿과 忠孝와 勲業이 赫赫한 바 아직도 우리 先祖의 偉業과 巨績을 全部 發掘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立場에 놓여 있는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우리 慶州鄭氏門中 여러분은 各宗派를 超越하여 過去 우리 先祖들의 偉業과 聖德을 發掘 整理하여 이를 后孫들에게 알려 주므로써 우리와 后孫들이 나의 “뿌리”를 알고 慶州鄭氏門中으로서

의 自負와 矜持를 갖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現實은 物質文明과 더불어 黃金萬能主義가 澎湃하면서 부터 우리의 美風良俗인 大家族制度가 核家族主義로 變遷하고 우리의 祖上을 崇拜하는 精神마저 漸次 衰退해가는 地境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趨勢는 人間의 尊嚴性和 價値性마저도 危殆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人間이 人間답게 存在하는 理由는 그 族譜가 있고 氏族으로서의 傳統과 歷史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氏族보다도 悠久한 歷史와 빛나는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慶州鄭氏門中이 이제 偉大하신 先祖의 業을 이어 받아 發展시키고 이를 后孫들에게 繼承하기 爲한 基礎的 作業으로서 慶州鄭氏二千年史를 發刊하게 된것은 자못 그 意義가 크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慶州鄭氏門中의 永遠한 繁榮을 期約하는 좋은 契機가 될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氏族史로서는 그동안 우리 慶州鄭氏를 包含한 李 崔 · 孫 · 裴 · 薛各姓氏를 總網羅한 新羅二千年史를 發刊한데 이어 우리 門中의 힘만으로 慶州鄭氏二千年史를 發刊하게 된것은 우리 門中의 團結心과 實力을 對內外的으로 誇示한 것이며 우리 門中의 永遠한 發展의 터전을 이룩함과 同時에 이나라 이社會發展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慶州鄭氏二千年史를 發刊하는데 애쓰신 總裁를 비롯 한 任員여러분과 編輯委員의 勞苦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며 序文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西紀1985年 1月 日

樂浪候公 69代孫

大法院 判事 泰 均 謹序

發 刊 辭

우리 慶州鄭氏二千年史 發刊辭를 記하고자 하니 먼저 우리 國祖 檀君할아버지의 其英明하시고 偉大하신 開國理念이 生覺 나서 爲先 몇字 記述하고자 한다

高麗忠烈王 二十五年에 文成公 安珣先生과 같이 國史編修官을 지낸 歷史學者 閔漬先生의 著書인 本朝編年綱目에 王이란 別稱은 皇帝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當時의 李承休先生의 著書인 帝王韻記에도 中國의 王들과 같이 皇帝의 同意語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三國共同的 國祖로서 檀君을 明記하고 있거니와 國祖 檀君께서 「한얼」을 밝히시니 韓은 크고(大) 희고(白) 밝음(明)이며 하나(一)로 單一의 平和民族으로서 갈라 놓을수 없으며 나아가 人間이란 分裂되고 對立되어 싸울수 없음이니 모든 人間은 弘益人間을 天賦의 使命으로 함을 檀君古朝鮮의 開國精神으로 하여 神壇樹祭天儀式으로 밝힌 것이다 그래서 新羅始皇 居西干은(一說에 聖母 波斯蘇가 東方蘿井에서 낳으시었다함) “한얼”의 神託을 받고 王位에 오르시니 光明理化世界의 뜻으로 朴赫居世라 하다 當時 新羅六部村長(諸侯)中 한분이신 觜山珍支部長(智伯虎甘文王追封)할아버지께서 佐命功臣이 되시어 民族正氣가 旺盛하시고 捨生取義의 節義精神이 透徹하였을뿐 不啻라 時運이 有時하여 民有本邦의 王道를 지켜 왔으며 哲學的 信仰으로 되어 正命思想으로 이어 가게 하였으니 끝내는 三國의 統一新羅라는 韓民族의 大團圓의 歷史를 이룩하게 된 原動力이 된것이라 할것이다

우리 始祖 智伯虎할아버지의 其生活信條가 正義와 人道와 平

和를 사랑하셨던 聖傑의 얼을 이어 받으신 歷代 祖上들께서도 缺血의 英勇心과 堅結한 愛族意識으로 國事는 勿論 宗事에도 渾身의 勞力으로 精熟을 다 하셨지만 多小의 未及한 點은 英明하신 先祖의 不屈의 英勇性和 伶敏한 創發性을 지니신 後光을 받아 決哉라 西紀一九八三年六月十九日에 우리 慶州鄭氏四派(文獻公派 良景公派 月城尉公派 平章公派)를 代身한(所謂代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操心스럽게 創意工夫해서 有史以來 初有의 全國四十萬宗人들의 宿願事業인 四派를 統合한 慶州鄭氏 中央宗親會를 創設하고 同年七月三十日字 全國代議員總會에서 우리 宗人들의 宗寶典이 될 慶州鄭氏二千年史를 編纂하기로 皆讚共鳴하였다

이제 우리 先祖님들의 偉大한 德性和 創造的 資質로서 不斷히 燦爛한 藝術과 發明으로 人類文化에 貢獻寄與하여 왔다는 史實을 證하는 바이다

鄭門의 明明赫赫한 寶鑑이 될 二千年史는 或不可 考證할 수 있는 古代先祖가 있다손 치더라도 四派 先祖系譜를 整理統一하고 全國적으로 千波萬波로 흩어진 宗親들을 糾合하기 爲한 巨事大業이거늘 責善輔仁에 愛宗精神을 發揮하시와 相互 扶助協心해서 往聖을 繼承하고 來學 人材開拓은 勿論 後孫善導에 永世保續하리라 이 發刊辭를 쓰고자 하니 在北宗親들이 생각나 心琴이 울고 鬚鬚이 흐려진다 一時 國運이 不幸히도 國土가 兩斷되고 單一民族이 兩派에 놓이어 南北鼎立의 畸現狀을 이루고 있어 今番 慶州鄭氏二千年史에 愛慕하는 在北宗人들과 더불어 다 같이 收錄하지 못함은 千秋에 恨이 된다 이러한 崇祖觀念과 傳統意識을 自覺하는 意志의 表示로서 慶州鄭氏二千年史 編纂

發刊을 보게 된 것은 先進鄭門의 精神文化의 定立이라는 意義가 있는 것이니 이 史料史跡과 一系不亂한 先代史를 發掘採錄하는데 助援과 訓誨하여 주신 全國僉宗은 勿論 顧問 諮問委員 會長 團諸位와 特히 編纂委員들께서는 不顧家事하고 子午로 其血湯 腦枯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고저 하는 바이다 不文이 辭讓함이 當然하거늘 이 刊行事業이 歷史的 意義가 너무나 至大함에 感激한 나머지 敢히 數行을 發刊辭에 代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五年一月 日

慶州鄭氏中央宗親會 總裁 秉 善